

# WHO “코로나19로 정신보건 전례없는 위기”

양성판정자 불면·우울·섬망증 환자가족 고통도 사회적 비용 의료진 번아웃·우울증·불안증 재택격리에 가정폭력도 증가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전례 없는 '정신 보건 위기'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본부인범미 보건기구(PAHO)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은 18일(현지시간) 화상 회견에서 미주

지역의 정신보건 위기를 우려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에티엔 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미주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정신보건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에서 ‘초대형 약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불면증, 섬망증(환각, 초조, 과잉행동을 동반한 정신질환), 우울증 등을 겪게 된다”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많은 이가 감정을 두려워하고 아플까 봐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러스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불확실한 미래, 우리를 압도하는 뉴스와 오정보, 몇 주 또는 몇 달이나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탓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방역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장시간 일하는 의료진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몇 달 간 비상근무로 의료진이 탈진(번아웃)한 상태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에티엔 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

격과 자택대기 조치로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에 갇혀 외부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대유행 기간 가정폭력 실상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티엔 국장은 “정신보건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사회의) 필수적인 사업”이라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산불 악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퍼에 있는 베리에서 호수 근처에서 18일(현지시간) 소방차가 산불의 화염 속을 지나가고 있다. 전날 발생한 이 불은 24시간 만에 2700 에이커(약 10.9km)의 산림을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 자동차 크기 소행성 NASA '깜깜이' 속 지구 최근접 지나쳤다

작은 소행성 하나가 기록상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가 스쳐 지나갔다. '2020 QG'로 명명된 이 소행성은 전기 자동차 테슬라 정도의 크기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이 소행성이 지구를 살짝 비껴간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미국 우주과학 전문매체 '스페이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2020 QG' 소행성이 지구에서 1830마일(2945km) 떨어진 상공을 지나갔다고 18일 보도했다. NASA는 소행성이 지나가고 6시간이 지나야 캘리포니아주 팔로마 천문대가 관측한 정보를 통해 소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NASA의 지구근접천체연구센터는 “이 소행성은 태양 방향에서 지구로 접근했고, 우리는 소행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기록상 지구에 가장 근접한 소행성”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말리군과 시민들이 18일(현지시간) 수도 바마코에 있는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싸고 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은 케이타 대통령과 정부 시세 총리를 구금 중이다. /연합뉴스

## 군사쿠데타 구금 말리 대통령 사임 발표...“피 원치 않아”

반란군, 총리·의회의장 등 구금 군사 반란으로 구금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말리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사임을 발표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이타 대통령은 구금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 뒤 국영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사임과 함께 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괴로운 모습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케이타 대통령은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가 흐르기를 원치 않는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임이 즉각 유효하다고 말했다며 방송하면 하단에는 ‘퇴임하는 대

령’이라는 자막이 떴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오전 아프리카 북서부 말리 수도 바마코에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케이타 대통령과 정부 시세 총리를 구금했다. 이들은 대통령 사저를 포위하고 공중에 총을 쏘면서 위협했으며 시세 총리가 성명을 내고 반란 군인에게 진정하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위 민간 공무원과 군사 관리들도 대거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에는 케이타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이 쏟아져 나왔다. 케이타 대통령은 쿠데타 후 2013년 투표를 통해 집권했으나 이슬람 급진주의 대치를 둘러싼 정부의 무능과 부패 등

로 인기가 낮았다. 국제기구들은 쿠데타를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쿠데타에 유감을 나타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프랑스와 니제르의 요청을 수용해 19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말리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쿠데타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다. 지난 6월부터 말리의 정국 혼란을 가리킨 하프자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프리카 15개국 협의체인 사하라사막지역공동체(ECOWAS)와 과거 말리를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도 쿠데타를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뉴스

## 호주, 전국민에 코로나19 무료백신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약 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호주가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공급 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함께 개발하는 백신은 임상시험 최종단계 격인 3상 시험에 들어간 상태로 유력한 성공 후보로 꼽힌다. 호주는 이날 미국 제약사 백엔 디킨슨에서 주사기와 주사바늘 1억개를 구매하는 2500만 호주달러(약 214억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호주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서명한 것으로 호주 전 국민에 백신을 공급하는 비

## 62세 마돈나, ‘마리화나 생일파티’ 입방아

마스크 안 쓰고 관광버스 탑승 코로나19 방역수칙 또 무시 (25) 등도 함께했다. 페이지식스는 “마돈나가 제멋대로 생일 파티를 가졌다”고 꼬집었고, 영국 일간 미러지는 “마돈나의 생일 파티 사진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의 댓글을 막히게 했다. 해가 갈수록 마돈나의 생일 파티가 거칠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돈나가 자메이카의 한 휴양지에서 62세 생일을 축하하는 마리화나 파티를 열었다고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식스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돈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리화나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마돈나는 연초형 마리화나를 입에 물고 있었고, 손톱에는 마리화나 잎사귀 모양으로 매니큐어도 칠했다. 이 파티에는 35살 연하의 남자친구 알라마릭 윌리엄스와 친딸 로데스 리언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